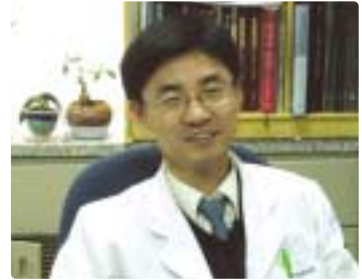


남성 당뇨병환자의 성기능장애

5년 전부터 경구혈당강하제를 먹고 있는 56세 남자로 발기부전을 주소로 비뇨기과 외래를 방문했다. 약 3~4년 전부터 성기의 강직도가 좀 떨어졌지만, 부부관계를 끝까지 할 수는 있었는데, 최근 1년 전부터는 관계 도중에 사정을 하지도 않았는데 발기가 소실되어 버리는 경우가 생겨 당황하게 되기도 하였다. 급기야는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부부관계를 전혀 할 수가 없어서 몇 번 시도 하다가 실패한 후로는 시도조차



강 정운 교수 |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 교실

하지 않고 지내고 있다고 한다. 정력에 좋다는 건강보조식품을 먹어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친구에게서 얻은 비아그라를 한알 먹어 보았는데,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고 한다. 간혹 새벽발기도 되는 때가 있고, 이전 같지는 않지만 마음이 동할때도 있지만, 몇 번의 좌절을 겪은 후라 섣뚱 시도하기가 두렵다고 하였다. 성기능을 평가하는 설문인 국제발기능지수로 보았을 때 11점으로 중등도의 발기부전이었고, 기본적인 혈액검사와 남성호르몬 수치는 정상이었다.

위와 같은 경우가 당뇨병에 의한 발기부전의 가장 흔한 예 중 하나인데, 대개 발기력의 약화가 서서히 진행되고, 성관계의 실패로 몇 번 당황한 후로는 의기소침 해져서 잠자리를 멀리하게 된다. 남성호르몬 수치가 정상이고 새벽발기도 간혹 되므로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가 우선적으로 선택될 수 있다. 이전에 친구에게서 얻어 먹은 비아그라는 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불분명 하고, 무엇보다 복용법을 정확히 지키지 않아서 효과가 없을 수 있다.

무분별한 발기부전 치료제 복용은 삼가 해야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는 국내에서 개발된 것을 포함하여 4종류가 있는데, 약물의 최대 효과가 나오는 시간은 조금씩 다르다. 또한 발기부전 치료제의 작용기전은 성적 자극이 있을 때 나오는, 발기를 일으키게 하는 신경전달물질이 파괴되지 않고

오래 지속되게 함으로써 발기를 유발하게 한다. 그러므로 약을 먹고 발기가 되기를 기다리면 약효가 없고, 반드시 적절한 자극을 주어야 약효가 발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복용법을 모른채 무턱대고 약을 먹고 발기가 되지 않아 낙심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 남자는 약 처방 후 성공적인 부부관계가 가능했다고 하며 현재 외래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당뇨병이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원인

발기부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웰빙과 삶의 질을 먼저 생각하는 요즘은 남녀 모두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보고에 따라 다르지만 당뇨병이 있는 남성의 약 35~75%가 발기부전을 경험한다고 하니 당뇨병이 발기부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커다고 할 수 있다. 당뇨병이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원인은 크게 3가지로 생각하고 있다.

혈관이 막혀 혈액 공급이 차단

첫째로 혈관에 미치는 영향을 들 수 있다.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으로 눈의 망막 혈관이 막혀 실명을 하는 경우나 신장혈관이 막혀 만성신부전이 되는 경우를 흔히 본다. 이와 비슷하게 남성 성기로 가는 혈관이 막혀 발기에 필요한 혈액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고, 무엇보다 혈관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성기를 구성하는 음경 해면체가 탄력성을 잃고 굳어지게 된다. 발기가 되려면 충분한 양의 혈액이 해면체내로 들어와서 팽창해야 하는데, 탄력을 잃은 해면체는 팽창도 되지 않고, 들어온 피가 빠지지 않도록 잡아둘 힘도 없어지기에 강직도도 떨어지고, 중도에 허물 허물하게 발기가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

둘째로 신경에 미치는 영향을 들 수 있다. 당뇨병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발에 상처가 잘 생기고 잘 아물지 않아, 심한 경우 발을 절단하기도 하는 합병증이 생긴다. 이는 당뇨병에 의해 감각신경에 변성이 와서 감각이 무뎌져서 생기는 것으로, 마치 전신마비 환자가 욕창이 잘 생기

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발기를 유발하는 신경에도 변성이 와서 발기를 유발하는 자극에 둔감해지고, 발기를 유발하는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감소시켜 발기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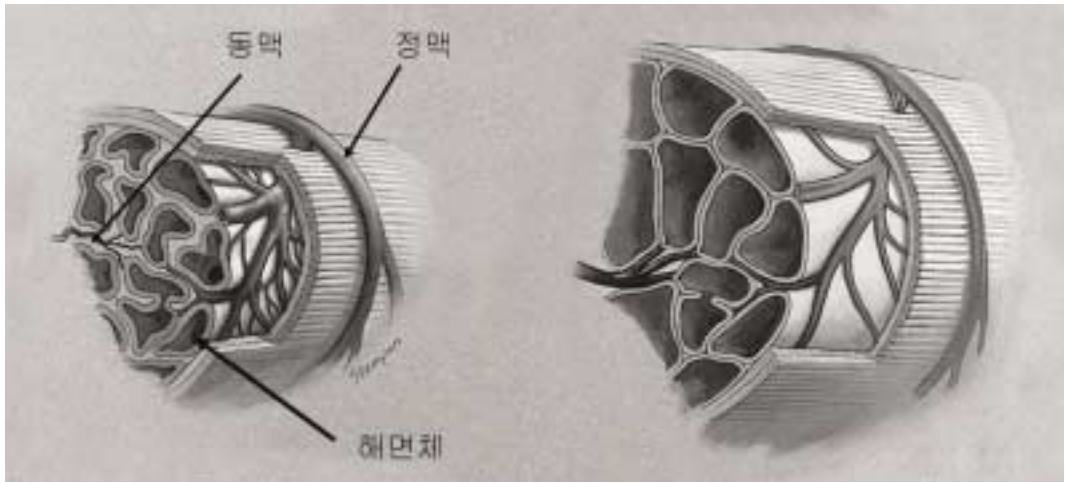
실패로 인한 좌절과 두려움

기타 원인으로, 심리적 요인을 들 수 있는데, 앞서 말한 남자 환자처럼 몇 번의 실패와 좌절로 인하여 다음에도 실패할까 하는 두려움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에 내재하게 되어 발기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그리고 당뇨병환자는 고혈압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노제나 베타차단제 같은 고혈압 약물은 발기력을 떨어뜨리기에, 가능하다면 다른 종류의 고혈압약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면 당뇨병성 발기부전의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발기부전 약물복용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치료법은 경구용 약물 복용이다. 현재 비아그라, 레비트라, 시알리스, 자이데나의 4종류의 약이 사용되고 있는데, 각 개인에 따라 효과가 좋은 약이 조금씩 다르고 작용지속시간이나 최대 효과를 나타내는 시간 등이 각각 다르기에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약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는 성적인 자극이 있어야도 효력을 발생하는 원리이기에, 성관계를 갖기 수십 분에서 수시간 전에 약을 먹고 나서, 충분한 자극을 줘야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약 80%의 환자에서 성공적인 성생활이 가능하다고 보고될 정도로 효과는 비교적 좋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당뇨병환자는 심혈관계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환자 중에서 심혈관계 문제로 복용하는 약물 중에는 경구용 발기부전제와 동시에 복용할 수 없는 약이 있기에 반드시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의한 후에 발기부전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기유발 약제 주사 투여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에 효과가 없던지, 심혈관계 문제로 경구용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환자는 음경해면체 자가 주사요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당뇨병환자에서 인슐린을 자가 주사하듯이 발기유발 약제를 가느다란 주사침으로 성기부위에 직접 주사를 하면 바로 발기가 된다. 주사요법은 효과가 뛰어나지만, 간혹 음경의 발기가 사정 후에도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되는 지속발기증을 초래할 수 있다. 대개 4시간 이상 발기가 지속되면 음경해면체내에 차있는 혈액이 굳고,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해면체 조직 자체가 손상을 받게 되므로 이런 경우는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발기유발 주사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지속발기증이 생기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 응급실로 와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조그만 펌프를 삽입하는 수술

경구용 약물이나 주사제에도 전혀 반응이 없는 경우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음경해면체 내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것인데, 평소에는 성기가 말랑말랑하게 있다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 음낭부위에 있는 조그만 펌프를 작동시키면 성기내의 보형물에 물이 가득차게 되어 발기가 되도록 고안 되어있다. 보형물은 효과는 매우 우수하나, 장비가 고가인데다 수술 후에는 더 이상 저절로 발기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충분한 면담 후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몇 년 전에 '죽어도 좋아'라는 영화가 나와서 노인들의 자연스러운 성생활에 대한 편견을 깨트렸다고 호평을 받은 적이 있다.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당뇨병이 있으니까 이제 성생활은 연감생심 꿈도 꾸지 말라고 지레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은가? 당뇨병환자는 혈당조절, 식사조절, 적절한 운동과 체중조절 등 자기관리가 중요한데 여기에 하나 덧붙여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통해 성기능 관리까지 해 나가면 자기관리 하지 않는 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